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8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23일(음력 3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전통사찰 화마에 지켜라" 화재보험 지원 입법 추진

영남 산불 피해 사찰 6곳 중
청송 보광사만 화재보험 가입
국유 유산만 보험 가입 의무
전통사찰 화재보험 사각지대
이헌승 의원, 法 개정 발의
소방청, 전통사찰 안전 점검



동해소방서가 4월 3일 동해 삼화사 일원에서 산불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동해소방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찰 화재 예방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봉축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전국 사찰에서 소방 안전 점검도 시행된다.

국회 정각회장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최근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지스님이 화재 및 도난, 재난에 대비해 방재시설과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 6곳 중 청송 보광사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화재로 인한 전통사찰 피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으로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용주사(경기 화성시), 내장사(전북 정읍시), 칠장사(경기 안성시), 증심사(광주 동구) 4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찰의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 '2024년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사찰 목조 문화유산 총 129곳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45곳으로 미가입률이 65.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찰까지 확대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까닭은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상 국·공유 문화유산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대다수 전통사찰과 소장 목조 문화유산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불교 사찰 특성상 대부분의 전각이 목조 건축물이어서 화재의 위험이 크고, 문화유산적 가치까지 반영되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사찰 재정만으로 비용 감당이 어렵고, 보험사에서도 취급을 꺼린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의 화재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취급을 꺼려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통사찰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 민족문화 유산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수건물 보험 공동 인수' 제도를 활용해 보험사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화재보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 예방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30일까지 전국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보유 사찰 90곳을 포함해 전국 983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찰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 취급 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 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 제거 등이다.

또 전국의 각 소방서는 관내 주요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및 방수총 작동 훈련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초기 화재 대응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급격히 연소·확산할 우려가 크며, 산림과 인접한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찰 관계자는 물론, 방문하는 국민들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서울 조계사, 선원수좌회가 4월 14~20일 서울 조계사서 진행한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가 성료했다. '간화선'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이번 법석에는 7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불자들이 함께하며 선지식 일곱 스님의 감로수 같은 청량한 법문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들 상처난 마음, 간화선으로 어루만지다

미래본부 · 조계사 · 선원수좌회
4월 14~20일 담선대법회 봉행
7명 선지식 〈육조단경〉 교재로
국민화합 · 국운융창 함께 발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간화선의 지혜로 국민화합과 국운융창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된 담선대법회가 성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선명상의 본질인 '간화선'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이번 법석에는 7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불자들이 함께하며 선지식 일곱 스님의 감로수 같은 청량한 법문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서울 조계사, 선원수좌회와 함께 4월 14~20일 조계사에서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개최했다.

담선대법회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禪)의 지혜로 국난극복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법석이다. 이번 대법회는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육조단경〉을 교재로 조계종을 대표하는 7명의 선지식이 법사로 나섰다.

첫 법석은 백담사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이 장식했다. 4월 14일 대웅전에서 열린 열린 담선대법회 릴레이 법문 첫 주자로 법석에 오른 영진 스님은 육조 혜능의 발심부터 수법(受法) 과정을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법했다. 달마 대사의 안심법문 화두를 들려준 영진 스님은 국정논란과 산불 피해 등 국가적 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했다.

이틀째인 4월 15일에는 석종사 조실 혜국 대종사가 법문을 이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법회에서 혜국 스님은 〈육조단경〉의 '정혜품'과 '무념품'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혜국 스님은 "21세기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이라며 "조상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팔만대장경을 판각하며 국론을 통일했던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6일에는 송광사 방장 현묵 대종사가 세번째 법상에 올라 법문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형 산불 등으로 혼란 한 상황을 우려하며 법문을 시작한 현묵 스님은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아난존자에서부터 대낮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서산대사와 금강산 신계사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던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의 일대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18일에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19일에는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20일에는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가 법상에 올랐다. 법회 기간 매일 1000여 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조계사에 운집해 선지식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조계종은 올 가을에도 담선대법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4일, 첫 담선대법회를 앞두고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을 만나 "조계종의 종지종풍인 간화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법석을 계기로 수행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교가 큰 역할을 해온 만큼, 마음의 치유와 평안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법석을 봄가을로 열어 국민 마음 안정에 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한국전통 간화선의 수행법이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간화선 화두에 몰입해 본래 마음을 홀연히 봐 중생 마음을 정화해 혼탁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거듭 정진해 나가자"면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간화선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각법 교육

접수 기간 2025년 03월 17일(월) 부터
교육 내용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교육 장소 해인사 판각학교 (구 해인초등학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3길 8
교육 일정 토요일, 일요일 中 택1 (13:00 ~ 17:00)
교육 대상 스님, 일반인, 남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서는 작성 후 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접수
(신청서는 아래 QR 코드나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 해인사 홈페이지 : haeinsa.or.kr
- 이메일 : 12haeinsa@naver.com
- 신청문의 : 055-934-3000
- FAX : 055-934-3010
- 우편 :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종무소
- 직접방문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종무소